

에 구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급성염증이 곧 다래끼다. 특히 몸이 쇠약하거나 피로할 때, 또는 당뇨병이 있을 때 생기기 쉬우니까 다래끼가 자주 생기면 몸이 피로하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할 수도

게 그야말로 전전긍긍한 결과 결혼식 전날에야 겨우 안대를 풀고 대사를 치르게 한 일도 있었다.

치료는 초기에 가렵고 눈이 좀 부운듯한 단계에서는 손으로 비벼서 자극을 주지 말고, 항생제 안약을 바르거나 또는 항생제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2~3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항생제를 복용하지 말고 눈을 따뜻하게 해서 빨리 낫도록 촉진한다.

고름이 생긴 후에도 잘 터지지 않을 때는 안과에 가서 피부를 절개하여 고름을 빼내는 것이 오히려 흉터가 안생기게 하는 방법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계속해서 다래끼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는 몸의 피로를 피하고, 다래끼가 다 나은 후에도 항생제 안약의 점안이나 복용을 1~2주간 계속하면 예방이 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래끼는 병으로 치지도 않고 놓아두면 저절로 낫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만일 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 아주 위험한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전신에 열이 나고 증상이 중할 때는 안과에 가도록 하며 절대로 손으로 고름을 짜서는 안된다.

예로부터 면종, 즉 얼굴에 난 종기를 짜지 말라는 것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자주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낫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아 치유기간만 길어지고 흉한 상처가 남는 수가 많으니 함부로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57

# 어느 新婦의 눈다래끼

속눈썹 뿌리에 있는 기름샘이나 땀샘에 구균이 침범하여 생기는 급성염증이 눈다래끼다. 그런데 결혼식이 임박한 어느 신부가 눈다래끼가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정성들여 치료한 결과 전전긍긍 끝에 결혼식 전날 안대를 풀고 대사를 치를 수 있었다.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있다. 증세는 처음 눈꺼풀이 가렵다가 충혈되며 차츰 부어 오르고 누르면 아프다. 특히 눈꼬리에 생기면 증상이 심하고 몹시 아프며 눈의 환자 위가 부어오르기도 한다. 보통 4~5일이 지나면 눈꺼풀에 고름이 생기며 이것이 피부를 뚫고 터지면 곧 가라앉는다.

이렇게 증세가 간단하니까 환자가 미리 진단을 내리고 병원에 찾아온다.

“선생님, 재수없게 또 다래끼가 났어요” 하며 계면쩍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래끼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이신을 사 먹었더니 낫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는군요”하고 매우 걱정하는 환자도 있다.

한번은 진땀을 뺀 일이 있다. 결혼식 날짜를 받아 놓은 신부가 결혼식이 임박해서 다래끼가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왔다. 다래끼를 가지고 의사와 환자가 중병 못지않

다래끼라고 하면 누구나 한번쯤은 앓아본 일이 있는 흔한 눈병이다. 어린이나 젊은 사람에게 많지만 어떤 연령층에서도 볼 수 있다.

눈에는 속눈썹 뿌리 근방에 기름기를 분비하는 기름샘이 있어 눈물에 적당하게 기름을 섞어 눈동자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름샘이나 땀샘